

중1-2
국어
지학사

2026 중1-2 국어 지학사 | 2(1) 단어의 짜임과 새말 직전 보강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!

시 직전 보강



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?

이번 단원에서는 **형태소의 개념과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, 주어진 문장이 나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정확히 분석하는 문제, 단어의 개념과 짜임을 이해하는 문제, 복합어를 합성어와 파생어로 분류하고 그 예시를 파악하는 문제** 등이 출제돼. **형태소가 뭔지 기억하니?**



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였어요.

맞아. 형태소를 더 나누면 본래 가지고 있던 뜻을 잃어버리게 돼. 그러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뭔지는 기억하고 있니?



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고, 의존 형태소는, 음, 기억이 안 나요.

의존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없어. 또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,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의미만 있어. 그러면 합성어와 파생어가 뭔지는 기억하고 있을까?



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끼리 결합한 거예요.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거구요. 근데 어근은 뭐고 접사는 뭐예요? 헷갈려서 이해가 안 돼요.

어근은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뜻을 지녀서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해. 접사는 단어를 만들 때 어근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만 더해주는 부분이고 말이야. ‘꽃사과’에서는 ‘꽃-’이 접사이고, ‘사과’가 어근이야.





아, 그렇구나. 이제 알겠어요.

그러면 새말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지? 새말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말해볼까?



새말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났을 때 이를 표현하거나 빠르게 의미를 전달하려고 만들어진 말이에요.

맞아. 외국에서 온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새말이 만들어지기도 해. 새말은 합성이나 파생, 또는 줄임말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꼭 기억해두렴.



네, 이제는 잘 알겠어요. 열심히 공부해 들게요!

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,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.

지문 분석

1 단어와 형태소

1. <보기>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. (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<보기>

‘사과나무’라는 단어는 ‘사과’와 ‘나무’로 나눌 수 있다. ‘사과’와 ‘나무’는 각각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. 그런데 ‘사’와 ‘과’, ‘나’와 ‘무’처럼 더 나누면 본래 가지고 있던 뜻이 사라지게 된다. ‘사과’와 ‘나무’처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. (형태소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사과나무가 여기 있다.						문장
사과나무	가	여기	있다	단어		
사과	나무	가	여기	있-	-다	형태소

문장	달빛이	정말	밝다.
----	-----	----	-----

단어로 나누기	달빛	이	정말	밝다
---------	----	---	----	----

형태소로 나누기	달	빛	이	정말	밝-	-다
----------	---	---	---	----	----	----

단어와 형태소

단어	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로, 단어 사이는 띄어 쓴다. 다만, 조사는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데, 이렇게 단어에 붙었다가 쉽게 분리되는 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. (단어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	예 사과나무, 가, 여기, 있다
형태소	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, 더 나누면 본래 가지고 있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.	예 사과, 나무, 가, 여기, 있-, -다

2. <보기>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종류별로 나누어 보자.(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<보기>

‘손거울이 예쁘다.’를 형태소로 쪼개면 ‘손/거울/이/예쁘-/ -다’가 된다. 그런데 형태소는 ‘홀로 쓰일 수 있는가?’와 ‘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?’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.

형태소로 나누기	손 / 거울 / 이 / 예쁘- / -다			
형태소의 종류별로 나누기	홀로 쓰일 수 있는가?		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?	
	예	아니요	예	아니요
	손, 거울	이, 예쁘-, -다	손, 거울, 예쁘-	이, -다
	▼	▼	▼	▼
	자립 형태소	의존 형태소	실질 형태소	형식 형태소

‘손’이나 ‘거울’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홀로 쓰일 수 있다. 이에 비해 ‘예쁘-’는 실질적인 의미는 갖고 있지만 홀로 쓰일 수 없다.(문장의 형태소를 종류별로 나눌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문장	잔디밭이 늘 푸르다.			
단어로 나누기	잔디밭 / 이 / 늘 / 푸르다(문장을 단어로 나눌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			
형태소로 나누기	잔디 / 밭 / 이 / 늘 / 푸르- / -다			
형태소의 종류별로 나누기	홀로 쓰일 수 있는가?		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?	
	예	아니요	예	아니요
	잔디, 밭, 늘	이, 푸르-, -다	잔디, 밭, 늘, 푸르-	이, -다

형태소의 종류(형태소의 종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홀로 쓰일 수 있는가?	예	자립 형태소	㉠ 손, 거울	→ 체언, 수식언, 독립언
	아니오	의존 형태소	㉡ 이, 예쁘-, -다	→ 조사, 용언의 어간, 어미, 접사
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?	예	실질 형태소	㉠ 손, 거울, 예쁘-	→ 모든 자립 형태소, 용언의 어간
	아니오	형식 형태소	㉡ 이, -다	→ 조사, 어미, 접사

㉒ 단어의 종류와 특성

1. <보기>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자.(단어의 종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<보기>

‘사과나무’를 구성하는 ‘사과’와 ‘나무’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어근이라고 한다. 이에 비해 ‘꽃사과’의 ‘꽃-’은 어근인 ‘사과’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만을 하는데, 이를 접사라고 한다.

단어의 종류에는 하나의 어근만으로 만들어진 단일어와 그렇지 않은 복합어가 있다. 복합어에는 둘 이상의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와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가 있다.(단어를 종류별로 나눌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단어	단어의 짜임	단어의 종류
사과	사과(어근)	단일어
사과나무	사과(어근) + 나무(어근)	합성어
꽃사과	꽃-(접사) + 사과(어근)	파생어

단어	단어의 짜임	단어의 종류
부채	부채(어근)	단일어
부채질	부채(어근) + -질(접사)	파생어
부채춤	부채(어근) + 춤(어근)	합성어

단어의 종류

단어	단어의 종류		
	단일어	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㉠ 사과, 하늘, 구름	
	복합어	합성어	둘 이상의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 ㉡ 사과나무, 앞뒤, 팔다리
	파생어	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단어 ㉢ 꽃사과, 맨손	

2. <보기>를 참고하여 합성어에 관해 알아보자.

<보기>

‘떡국’은 ‘떡’과 ‘국’으로 나눌 수 있다. ‘떡’과 ‘국’은 각각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(어근)이다. ‘떡국’처럼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.(합성어의 형성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떡국: 떡 + 국
(어근) (어근)

(1) <보기>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를 나누어 보자.(합성어의 어근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	어근	어근	어근
보름달	보름	달	
여우비	여우	비	
눈꽃송이	눈	꽃	송이
양떼구름	양	떼	구름
물고기자리	물	고기	자리

(2) 그림 속 단어 카드를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어 보자.

잠	돌	그림
검다	낮	다리
	책	붉다
		옷

예) 낮 + 잠 → 낮잠

그림 + 책 → 그림책 돌 + 다리 → 돌다리

잠 + 옷 → 잠옷 검다 + 붉다 → 검붉다

3. <보기>를 참고하여 파생어에 관해 알아보자.

<보기>

‘개떡’은 ‘개-’와 ‘떡’으로 나눌 수 있다. ‘떡’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(어근)이다. 그러나 ‘개-’는 ‘떡’에 붙어 뜻을 더해 줄 뿐 혼자 쓰이지 못하는 말(접사)이다. ‘개떡’처럼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.(파생어의 형성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개떡: 개- + 떡
(접사) (어근)

(1)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. (접사의 뜻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단어	국어사전에서 찾은 뜻	실질적인 뜻이 있는 부분	혼자 쓰일 수 없고 뜻을 더해 주는 부분
맨발	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	발	맨-
덧버선	버선 위에 겹쳐 신는 큰 버선	버선	덧-
농사꾼	농사짓는 일꾼	농사	-꾼

(2) 다음 뜻을 더해 주는 말이 들어간 파생어를 찾아보자. (파생어에서 접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햇-		
그해에 새로 난	▶	예) 햇밤, 햇감자, 햇사과, 햇과일
햇-		
이유 없는, 보람 없는	▶	예) 헛수고, 헛고생, 헛소문, 헛걸음
-꾸러기		
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	▶	예) 잠꾸러기, 장난꾸러기, 욕심꾸러기

4. 다음 노랫말을 보고, 밑줄 친 단어들의 종류를 알아보자.

나는 나비 (이 글을 지문으로 하여 합성어와 파생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 (앞+길)도 보이지 않아
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(애+벌레)
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
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

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
봄바람 (봄+바람)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

날개 (날+개)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
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
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
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

- 박태희 작사

단어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가?(어근과 접사의 결합 여부에 따른 단일어와 합성어, 파생어의 해당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예	아니요	
단일어	복합어	
겨울, 활짝	단어가 '어근 + 어근'으로 이루어져 있는가?	단어가 '어근 + 접사'로 이루어져 있는가?

예	아니요
합성어	파생어
앞길, 봄바람	애벌레, 날개

③ 새말의 형성과 짜임

1. 새말의 형성 이유를 알아보자.

(1)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새말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.(새말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예전에는 없던 날아다니는 새로운 물체를 가리키기 위해 '드론'이라는 말이 생겼어.	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빠르게 보내려고 '엄빠'(엄마와 아빠) 같은 말을 쓰게 됐어.	외국어에서 온 말인 '텀블러'를 '통컵'으로 순화했다고 해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(2) <보기>의 새말들을 생겨난 이유에 따라 나누어 보자.(새말이 생겨난 이유에 따라 해당하는 단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<보기>
공기청정기, 맛집, 비번, 열일, 인공지능, 전기자동차, 손전화(핸드폰), 댓글(리플)

새말이 생겨난 이유	단어
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남.	공기청정기, 인공지능, 전기자동차
빠르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.	맛집, 비번, 열일
외국어에서 온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함.	손전화, 댓글

2. 새말의 형성 방식을 알아보자.

(1) 새말을 만든 방식을 생각하며,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 보자.(새말이 만들어진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단어	뜻	만들어진 방식
노래방	노래를 부르도록 장치를 해 놓은 곳	노래(어근) + 방(어근) → 합성어
누리꾼	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	누리(어근) + -꾼(접사) → 파생어
혼밥	혼자서 밥을 먹음.	문장을 줄임.

(2) (1)의 새말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더 찾아보자.(새말의 형성 방식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'노래방'의 방식	▶	둘레길, 누리집, 금수저
'누리꾼'의 방식	▶	비대면, 폰질, 엄지족
'혼밥'의 방식	▶	깜놀, 불매, 심쿵

새말의 형성 이유와 방식(새말의 형성 이유와 방식에 대해 종합하여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새말이 만들어지는 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생겨난다. • 빠르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생겨난다. • 국어 순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.
새말이 만들어지는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합성이나 파생의 방식 ㉠ 누리집, 누리꾼 • 줄임말의 방식 ㉡ 문상(문화 상품권), 혼밥(혼자서 밥을 먹음.)

중1-2
국어
지학사

2026 중1-2 국어 지학사 | 2(1) 단어의 짜임과 새말 내신 암기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암기용

1. 주요 문법 단위①

음운	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
음절	실제 소리를 이루는 최소 단위
형태소	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

2. 주요 문법 단위②

단어	의미를 가지며 홀로 쓰일 수 있는 말
어절	문장을 이루는 각각의 마디로, 띄어쓰기의 단위
문장	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되게 담은 최소의 단위

3. 형태소의 종류

자립 형태소	홀로 쓰일 수 있음.
의존 형태소	홀로 쓰일 수 없음.
실질 형태소	실질적인 의미가 있음.
형식 형태소	실질적인 의미가 없음(문법적인 의미만 있음.).

4. 단어의 종류

단일어	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짐.	
복합어	합성어	어근+어근
	파생어	어근+접사(접사+어근)

5. 접사의 의미

접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-: ‘야생 상태의’ 또는 ‘질이 떨어지는’의 뜻을 더함. • 맨-: ‘다른 것이 없는’의 뜻을 더함. • 덧-: ‘거듭된’ 또는 ‘겹쳐 신거나 입는’의 뜻을 더함 • 돌-: ‘품질이 떨어지는’ 또는 ‘야생으로 자라는’의 뜻을 더함. • 홀-: ‘짜이 없이 혼자뿐인’의 뜻을 더함. • 시-: ‘매우 짙고 선명하게’의 뜻을 더함. • 올-: ‘생육 일수가 짧아 빨리 어무는’의 뜻을 더함. • 풋-: ‘처음 나온’, 또는 ‘덜 익힌’의 뜻을 더함. • 애-: ‘뻘 저음’의 뜻을 더함. • 날-: ‘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’의 뜻을 더함.
접미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-꾼: ‘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’ 또는 ‘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’의 뜻을 더함. • -꾸러기: ‘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’의 뜻을 더함. • -등이: ‘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’의 뜻을 더함. • -보: ‘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’, ‘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’의 뜻을 더함. • -장이: ‘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’의 뜻을 더함. • -쟁이: ‘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’의 뜻을 더함. • -개: ‘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’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들.

6. 새말의 이해

개념	새로 생긴 말.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 = 신어, 신조어
형성 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전에 없던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• 빠르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• 국어 순화를 위해
형성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적인 단어 형성 방식에 따라(합성어나 파생) • 기존의 말을 줄여서

TEST 1단계

1. 주요 문법 단위①

□운	말의 □을 □별해 주는 소리의 □소 단위
□절	실제 □리를 이루는 □소 단위
□태소	□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

2. 주요 문법 단위②

□어	□미를 가지며 홀로 쓰일 수 □는 말
□절	문장을 이루는 각각의 □디로, □어쓰기의 단위
□장	□각이나 □정을 □결되게 담은 최소의 단위

3. 형태소의 종류

□립 형태소	홀로 쓰일 수 □음.
□존 형태소	홀로 쓰일 수 □음.
□질 형태소	□질적인 □미가 □음.
□식 형태소	실질적인 의미가 없음(□법적인 의미만 있음.).

4. 단어의 종류

□일어	하나의 □근만으로 이루어짐.	
□합어	□성어	어근+어근
	□생어	어근+□사(접사+어근)

5. 접사의 의미

접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-: '□생 상태의' 또는 '질이 떨어지는'의 뜻을 더함. • 맨-: '다른 것이 □는'의 뜻을 더함. • 덧-: '거듭된' 또는 '□쳐 신거나 입는'의 뜻을 더함 • 돌-: '품질이 □어지는' 또는 '야생으로 자라는'의 뜻을 더함. • 홀-: '짜이 없이 □자뿐인'의 뜻을 더함. • 시-: '매우 짙고 □명하게'의 뜻을 더함. • 울-: '생육 일수가 짧아 □리 □무는'의 뜻을 더함. • 풋-: '처음 나온', 또는 '□ □은'의 뜻을 더함. • 애-: '□ □음'의 뜻을 더함. • 날-: '말리거나 익히거나 □공하지 않은'의 뜻을 더함.
접미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-꾼: '어떤 일을 □문적으로 하는 사람' 또는 '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꾸러기: '그것이 □하거나 많은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둥이: '그러한 □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보: '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', '그것을 □성으로 지닌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장이: '그것과 관련된 □술을 가진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쟁이: '그것이 나타내는 □성을 많이 가진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개: '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□구'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들.

6. 새말의 이해

개념	새로 생긴 말.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 = 신어, □조어
형성 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전에 없던 □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• □르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• 국어 □화를 위해
형성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적인 단어 형성 방식에 따라(합성어나 파생) • 기존의 말을 □여서

TEST 2단계

1. 주요 문법 단위①

ㅇ ㅇ	말의 [ㄷ]을 [ㄱ ㅂ]해 주는 소리의 [ㅈ ㅅ] 단위
ㅇ ㅈ	실제 [ㅅ ㄹ]를 이루는 [ㅈ ㅅ] 단위
ㅎ ㅌ ㅅ	[ㄷ]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

2. 주요 문법 단위②

ㄷ ㅇ	[ㅇ ㅁ]를 가지며 홀로 쓰일 수 [ㅇ ㄴ] 말
ㅇ ㅈ	문장을 이루는 각각의 [ㅁ ㄷ]로, [ㄷ] [ㅇ]쓰기의 단위
ㅁ ㅈ	[ㅅ ㄱ]이나 [ㄱ ㅈ]을 [ㅇ ㄱ]되게 담은 최소의 단위

3. 형태소의 종류

ㅈ ㄹ 형태소	홀로 쓰일 수 [ㅇ ㅇ].
ㅇ ㅈ 형태소	홀로 쓰일 수 [ㅇ ㅇ].
ㅅ ㅈ 형태소	[ㅅ ㅈ ㅈ]인 [ㅇ ㅁ]가 [ㅇ ㅇ].
ㅎ ㅅ 형태소	실질적인 의미가 없음([ㅁ ㅂ ㅈ]인 의미만 있음.).

4. 단어의 종류

[ㄷ ㅇ] [ㅇ]	하나의 [ㅇ ㄱ]만으로 이루어짐.
[ㅎ ㅅ] [ㅇ]	어근+어근
[ㅂ ㅎ] [ㅇ]	어근+[ㅈ ㅅ](접사+어근)

5. 접사의 의미

접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-: '○ ㅅ' 상태의' 또는 '질이 떨어지는'의 뜻을 더함. • 맨-: '다른 것이 ○ ㄴ'의 뜻을 더함. • 덧-: '거듭된' 또는 'ㄱ ㅈ' 신거나 입는'의 뜻을 더함 • 돌-: '품질이 ㅌ ○ 지는' 또는 '야생으로 자라는'의 뜻을 더함. • 홀-: '짜이 없이 ㅎ ㅈ'뿐인'의 뜻을 더함. • 시-: '매우 질고 ㅅ ㅁ'하게'의 뜻을 더함. • 올-: '생육 일수가 짧아 ㅃ ㄹ ○ ㅁ ㄴ'의 뜻을 더함. • 풋-: '처음 나온', 또는 'ㄷ ○ ○'의 뜻을 더함. • 애-: 'ㅁ ㅈ ○'의 뜻을 더함. • 날-: '말리거나 익히거나 ㄱ ㄱ'하지 않은'의 뜻을 더함.
접미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-꾼: '어떤 일을 ㅈ ㅁ ㅈ'으로 하는 사람' 또는 '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꾸러기: '그것이 ㅅ ㅎ'거나 많은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동이: '그러한 ㅅ ㅈ'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보: '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', '그것을 ㅌ ㅅ'으로 지닌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장이: '그것과 관련된 ㄱ ㅅ'을 가진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쟁이: '그것이 나타내는 ㅅ ㅅ'을 많이 가진 사람'의 뜻을 더함. • -개: '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ㄷ ㄱ'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들.

6. 새말의 이해

개념	새로 생긴 말.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 = 신어, ㅅ ㅈ ○
형성 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전에 없던 ㅅ ㄹ ○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• ㅃ ㄹ ㄱ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• 국어 ㅅ ㅎ'를 위해
형성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적인 단어 형성 방식에 따라(합성어나 파생) • 기존의 말을 ㅈ ○ ㅅ

목민배포공서

O / X 문제

【1~10】 「단어의 짜임과 새말」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,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.

1.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는 단어이다.
..... (O / X)

2. 형태소는 더 나누면 본래 가지고 있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. (O / X)

3.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다. (O / X)

4. 단어는 의미를 가지며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.
..... (O / X)

5. 합성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단어이다.
..... (O / X)

1. X 2. O 3. X 4. O 5. X

중1-2
국어
지학사

2026 중1-2 국어 지학사 | 2(1) 단어의 짜임과 새말 복습 필기용 지문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.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'나만의 필기'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!

지문

① 단어와 형태소

1. <보기>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.

<보기>

'사과나무'라는 단어는 '사과'와 '나무'로 나눌 수 있다. '사과'와 '나무'는 각각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. 그런데 '사'와 '과', '나'와 '무'처럼 더 나누면 본래 가지고 있던 뜻이 사라지게 된다. '사과'와 '나무'처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.

사과나무가 여기 있다.					문장
사과나무	가	여기	있다	단어	
사과	나무	가	여기	있-	-다 형태소

문장	달빛이	정말	밝다.
----	-----	----	-----

단어로 나누기				
---------	--	--	--	--

형태소로 나누기					
----------	--	--	--	--	--

단어와 형태소

단어	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로, 단어 사이는 띄어 쓴다. 다만, 조사는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데, 이렇게 단어에 붙었다가 쉽게 분리되는 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.	예 사과나무, 가, 여기, 있다
형태소	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, 더 나누면 본래 가지고 있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.	예 사과, 나무, 가, 여기, 있-, -다

2. <보기>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종류별로 나누어 보자.

<보기>

‘손거울이 예쁘다.’를 형태소로 쪼개면 ‘손/거울/이/예쁘-/-다’가 된다. 그런데 형태소는 ‘홀로 쓰일 수 있는가?’와 ‘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?’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.

형태소로 나누기	손 / 거울 / 이 / 예쁘- / -다			
형태소의 종류별로 나누기	홀로 쓰일 수 있는가?		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?	
	예	아니요	예	아니요
	손, 거울	이, 예쁘-, -다	손, 거울, 예쁘-	이, -다
	자립 형태소	의존 형태소	실질 형태소	형식 형태소

‘손’이나 ‘거울’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홀로 쓰일 수 있다. 이에 비해 ‘예쁘-’는 실질적인 의미는 갖고 있지만 홀로 쓰일 수 없다.

문장	잔디밭이 늘 푸르다.			
단어로 나누기				
형태소로 나누기				
형태소의 종류별로 나누기	홀로 쓰일 수 있는가?		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?	
	예	아니오	예	아니오

형태소의 종류

홀로 쓰일 수 있는가?	예	자립 형태소	예) 손, 거울
	아니오	의존 형태소	예) 이, 예쁘-, -다
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?	예	실질 형태소	예) 손, 거울, 예쁘-
	아니오	형식 형태소	예) 이, -다

㉒ 단어의 종류와 특성

1. <보기>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자.

<보기>

‘사과나무’를 구성하는 ‘사과’와 ‘나무’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어근이라고 한다. 이에 비해 ‘꽃사과’의 ‘꽃-’은 어근인 ‘사과’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만을 하는데, 이를 접사라고 한다.

단어의 종류에는 하나의 어근만으로 만들어진 단일어와 그렇지 않은 복합어가 있다. 복합어에는 둘 이상의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와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가 있다.

단어	단어의 짜임	단어의 종류
사과	사과(어근)	단일어
사과나무	사과(어근) + 나무(어근)	합성어
꽃사과	꽃-(접사) + 사과(어근)	파생어

단어	단어의 짜임	단어의 종류
부채		
부채질		
부채춤		

단어의 종류

단어	단일어	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㉠ 사과, 하늘, 구름	
	복합어	합성어	둘 이상의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 ㉡ 사과나무, 앞뒤, 팔다리
		파생어	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단어 ㉢ 꽃사과, 맨손

2. <보기>를 참고하여 합성어에 관해 알아보자.

<보기>

‘떡국’은 ‘떡’과 ‘국’으로 나눌 수 있다. ‘떡’과 ‘국’은 각각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(어근)이다. ‘떡국’처럼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.

떡국: 떡 + 국
(어근) (어근)

(1) <보기>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를 나누어 보자.

	어근	어근	어근
보름달			
여우비			
눈꽃송이			
양떼구름			
물고기자리			

(2) 그림 속 단어 카드를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어 보자.

잠	돌	그림
검다 낮	다리 책	붉다 옷

예) 낮 + 잠 → 낮잠

3. <보기>를 참고하여 파생어에 관해 알아보자.

<보기>

‘개떡’은 ‘개-’와 ‘떡’으로 나눌 수 있다. ‘떡’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(어근)이다. 그러나 ‘개-’는 ‘떡’에 붙어 뜻을 더해 줄 뿐 혼자 쓰이지 못하는 말(접사)이다. ‘개떡’처럼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.

개떡: 개- + 떡
 (접사) (어근)

(1)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.

단어	국어사전에서 찾은 뜻	실질적인 뜻이 있는	혼자 쓰일 수 없고 뜻을
		부분	더해 주는 부분
맨발			
덧버선			
농사꾼			

(2) 다음 뜻을 더해 주는 말이 들어간 파생어를 찾아보자.

헛- 그해에 새로 난	▶	예) 헛밤,
헛- 이유 없는, 보람 없는 -꾸러기	▶	예) 헛수고,
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	▶	예) 잠꾸러기,

4. 다음 노랫말을 보고, 밑줄 친 단어들의 종류를 알아보자.

나는 나비

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
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
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
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

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
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

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
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
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
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

- 박태희 작사

단어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가?

예	아니요	
단일어	복합어	
	단어가 '어근 + 어근'으로 이루어져 있는가?	단어가 '어근 + 접사'로 이루어져 있는가?

예	아니요
합성어	파생어

③ 새말의 형성과 짜임

1. 새말의 형성 이유를 알아보자.

(1)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새말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.

<p>예전에는 없던 날아다니는 <input type="text"/> 물체를 가리키기 위해 '드론'이라는 말이 생겼어.</p>	<p>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<input type="text"/> 보내려고 '엄빠'(엄마와 아빠) 같은 말을 쓰게 됐어.</p>	<p>외국어에서 온 말인 '텀블러'를 '통컵'으로 순화했다고 해.</p>
---	---	---

(2) <보기>의 새말들을 생겨난 이유에 따라 나누어 보자.

<보기> 공기청정기, 맛집, 비번, 열일, 인공지능, 전기자동차, 손전화(핸드폰), 댓글(리플)

새말이 생겨난 이유	단어
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남.	
빠르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.	
외국어에서 온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함.	

2. 새말의 형성 방식을 알아보자.

(1) 새말을 만든 방식을 생각하며,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 보자.

단어	뜻	만들어진 방식
노래방	노래를 부르도록 장치를 해 놓은 곳	노래(어근) + 방(어근) → 합성어
누리꾼	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	
혼밥	혼자서 밥을 먹음.	

(2) (1)의 새말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더 찾아보자.

‘노래방’의 방식	▶	둘레길,
‘누리꾼’의 방식	▶	비대면,
‘혼밥’의 방식	▶	깜놀,